키케로의 정치철학: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김 용 민 |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키케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크세노폰,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 서양 고대정치철학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키케로는 이들 그리스 철학자들의 후광에 가리어져 제대로 평가를 받아오지 못했다. 특히, 키케로가 플라톤의 대화편인 『국가』와 『법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작품을 쓰고, 그 내용도 플라톤의 각 대화편을 모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철학적 독창성은 경시되어 왔다. 그러나 키케로가 "로마인 플라톤"(a Roman Plato)으로서 재산, 자유, 혼합정체, 자연법, 자연적 정의 등의 핵심적인 정치철학적 개념에 관해, 새롭게 로마적인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고대정치철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고, 나아가 그의 사후 15~16세기 후의 근대정치철학과 연결될 수 있는 개념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조화와 정의를 추구했던 키케로의 정치철학은, 조화와 정의에 대한 키케로의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키케로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화와 정의에 대한 관점에 부응하는 새로운 현대의 정치철학을 모색할 수 있다.

주제어: 재산, 자유, 혼합정체, 자연법, 시민법, 자연적 정의, 조화, 이상국가, 로마공화국

I. 서 론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106-43 B.C.)는 소크라테스(469-

* 이 연구는 200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399 B.C.), 플라톤(427-347 B.C.), 크세노폰(c.430-c.354 B.C.), 아리스토텔레스(384-322 B.C.)와 더불어 서양고대정치철학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크라테스는 작품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철학의 형성과 발전에 끼친 심대한 영향은 논란의 여지없이 확실하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플라톤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크세노폰은 비록 플라톤과 대등한 철학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플라톤과는 다른 방법으로 전달해 고대정치철학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용민 2000).

키케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크세노폰,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명의 철학자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위 네 명의 철학자의 활동시기는 기원전 4-5세기인데 비하여 키케로의 활동시기는 기원전 1세기로 그 활동시기에 큰 차이가 있다. 위 네 명의 철학자 중 시기적으로 끝에 위치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322년에 죽었고, 키케로가 기원전 106년에 태어났으니, 네 명의 철학자와 키케로 사이에는 적어도 3세기 이상의 시대적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위 네 명의 철학자는 그리스인으로 주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데 비하여, 키케로는 로마인으로 당시 쇄락일로에 있던 로마공화정을 주요 정치무대로 삼아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원전 1세기경의 로마는 학문적 · 예술적 · 문화적으로 아테네에 비하여 후진지역이었으며, 아테네에서 고급문화를 수입하고 있었다.

고대정치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흔히 말해지는데, 이들에 비해 3세기나 지나서 활동했던 키케로가 고대정치철학의 "형성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키케로가 플라톤의 대화편인 『국가』와 『법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작품을 쓰고,[1] 그 내용도 플라톤의 대화편을 모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의 연구자들은 키케로가 그리스의 정치철학을 모방하고 있을 뿐, 독창적인 관점에서 고대정치철학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의 일부는 키케로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정치철학 분야가 아닌 수사학이나 문학 분야에서 주로 찾고 있다.[2] 그러나 다

1) 본 논문에서는 키케로의 『국가』와 『법률』을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과 구별하기 위하여, 플라톤의 작품은 『국가』와 『법률』로 키케로의 작품은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로 부르기로 한다.

2) 키케로에 대한 최근의 연구경향에 관해서는 닐 우드(Neal Wood 1988, Introduction) 참조.

른 일단의 연구자들은 키케로가 플라톤의 정치철학적 작품을 모방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키케로가 단순히 모방으로만 그치지 않고 로마인의 관점에서 로마공화국의 경험과 역사를 바탕으로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키케로의 독창성을 찾고 있다. 물론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키케로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반열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3] 이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키케로에게 미친 영향은 물론 인정해야 하지만, 이 철학자들과 구별되는 키케로의 독창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연구는 키케로가 근대정치철학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키케로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 그의 정치철학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재산, 자유, 자연법, 혼합정, 도덕적 평등, 애국심, 공화주의 등의 핵심개념들은 마키아벨리, 보댕, 그로티우스, 홉스, 로크, 몽테스키외, 흄, 루소 등등의 근대정치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Radford 2002, 84). 키케로가 그리스의 정치철학을 계승하면서,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로마에 전파하고 보급한 것은 물론 그의 학문적 공헌 중의 하나라고 하겠지만, 그리스 정치철학을 로마식으로 해석하면서, 고대정치철학의 전통 가운데서 분절점 또는 분기점을 찾아 후에 근대정치철학과 연결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대표적으로, 몸젠(Theodore Mommsen)은 그의 저서 *Roman History*에서, 핀리(Moses Finley)는 그의 저서 *Politics in the Ancient World*에서 키케로의 사상을 "비철학적이고 비역사적인" 것으로 폄하하고 있다. 세이빈과 스미스(G. H. Sabine & S. B. Smith)는 키케로의 『국가에 관하여』를 영역하면서, 키케로의 정치사상을 소개한 바 있는데, 자연법, 정의, 평등에 중점을 두어 키케로의 사상을 평가했던 이들의 관점은 별 비판을 받음이 없이 상당기간 영어권 학자들에게 수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들의 관점은 너무 철학적으로 경도되어 있어서, 키케로의 사상에 대한 정치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관점에 대해서는, 조지 세이빈 · 토마슨 솔슨(2005, 10장) 참조.

3) 우드는 위대한 정치사상가의 반열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로크, 루소, 헤겔, 마르크스를 포함시키면서, 키케로는 마키아벨리, 흄, 보댕, 몽테스키외, 버크, 존 스튜어트 밀과 함께 주요 정치사상가의 반열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드(Wood 1988, 12) 참조. 물론 이와 같은 우드의 평가는 논쟁점이 될 수 있다.

4) 이러한 최근의 연구경향이 잘 드러나 있는 대표적 저서로 다음 저서들을 손꼽을 수 있다. Neal Wood(1988); Robert T. Radford(2002); J. G. F. Powell(1995).

학문적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닐 우드(Neal Wood)나 래드포드(Robert T. Radford)는 키케로를 "근대정치사상의 출발(the start of modern political thought)"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Wood 1988, 11-12, 120; Radford 2002, 71).

필자는 본 논문에서 키케로의 정치철학이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는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과 내용과 형식이라는 면에서 어떤 점에서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분석하고, 키케로의 정치철학에서 드러나고 있는 근대적 요소가 무엇인지 자유, 재산, 혼합정체, 자연법, 정의 등의 핵심개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늘에 가려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키케로의 정치철학이 지닌 정치적 의미와 위상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한국정치학계에서는 키케로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데,[5] 본 연구가 키케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II. 키케로의 삶과 작품세계

키케로는 기원전 106년에 로마에서 남쪽으로 11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아르피눔에서 태어났다.[6] 그의 가문은 부유한 지주계급(equites)으로 지방귀족으로 활동해왔다. 키케로 이전에 그의 가문에서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한 사람은 없었다. 키케로의 아버지는 키케로와 키케로의 동생인 퀸투스에게 최상의 법률교육을 시키고자 이 둘이 아르피눔에서 중등교육을 끝낸 후에, 이 둘을 로마로 보냈다. 이후 키케로는 로마에서 복점관이었던 퀸투스 무키우스 스카이볼라(Quintus Mucius

5) 수사학, 역사학, 윤리학의 분야에서 키케로를 연구한 국내 논문이 10여 편 있으나, 정치학 분야에서는 전무한 편이다. 최근 정치학계에서는 공화주의(republicanism)나 애국심(patriotism)과 관련하여 키케로가 연구되고 있다.

6) 키케로에 관한 많은 평전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평전이 있다. D. R. Shackleton Bailey(1971); David Stockton(1971); Anthony Everitt(2001). 에버릿의 책은 김복미에 의해 번역되어 『로마의 전설 키케로』(2003)로 출간되었다. 간략하게 키케로의 정치적 삶과 작품을 다룬 소개서로는 다음이 있다: Wiedemann(1994); Williams(2004). 최근 국내에서 출판된 허승일 외(2006)는 키케로를 포함한 로마의 정치가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다.

Scaevola, 기원전 117년 집정관이었음)와 그의 사촌으로 같은 이름을 가졌고 대제사장이었던 퀸투스 무키우스 스카이볼라(기원전 95년 집정관이었음)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 당시 키케로는 그에게 스토아 철학을 가르쳐주었던 디오도투스(Diodotus)를 만났고, 플라톤의 아카데미학원의 원장이었던 라리사 출신의 필론(Philo of Larrisa)을 만났다. 기원전 79~77년 사이에 키케로는 그리스로 가서 수사학과 철학에 조예를 쌓았는데, 아테네에서는 아카데미학파에 속하는 아스칼론 출신의 안티오코스(Antiochus of Ascalon)의 강의를 들었으며, 소아시아의 로도스에서는 스토아 철학자인 포시도니우스(Posidonius of Rhodes)의 강의를 들었고 저명한 수사학자인 아폴로니우스 몰론(Apollonius Molon)에게 웅변술에 관해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기원전 75년 키케로는 재무관(quaestor)이라는 관직에 임명되었는데 이를 시작으로 키케로는 관직의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올라갔다. 기원전 69년에는 조영관(aedile)으로, 기원전 66년에는 법무관(practor)으로 활동하였으며, 기원전 63년에는 드디어 집정관(consul)이 되었다. 키케로는 중앙귀족출신이 아닌 지방귀족출신으로 집정관의 지위에 오른 흔치 않은 사람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집정관 재직 시 키케로가 처리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은 카틸리나의 반란 음모를 사전에 적발하여 그 일당을 분쇄함으로써 로마를 국가적 위기에서 건져낸 사건이었다. 키케로는 이 반란 사건에 연관된 카틸리나 진영의 다섯 사람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원로원 최종 권고"(*senatus consultum ultimum*)에 근거해서 사형에 처했는데, 후에 이것이 문제되어 키케로는 기원전 58년 클로디우스법에 의해 로마에서 추방되게 되었다. 클로디우스법의 골자는 적절한 적법한 절차 없이 시민을 처형하거나 처벌했던 관리에게 공권 박탈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었다. 기원전 57년 키케로의 복귀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해 중순 키케로는 최고의 환대를 받으며 로마로 돌아왔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서로 손을 잡고 삼두정치가 시작된 기원전 60년 이후, 키케로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는데, 기원전 57년의 복귀도 그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주지는 못하였다. 키케로는 정치적 공백기를 이용하여 정치적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기원전 55년부터 51년 사이에 『웅변가에 관하여』, 『국가에 관하여』, 『법률에 관하여』 등의 대화편을 집필했다. 기원전 51~50년 동안에 키케로는 길리기아에서 총독직을 수행했다. 기원전 49년부터 카이사르와 폼페이

우스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이 내전은 기원전 45년에 카이사르의 승리로 끝났다. 내전 중에 폼페이우스편에 가담했던 키케로는 카이사르가 승리를 거둠에 따라서 로마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내전 중에 다시 한번 정치적 공백기를 맞이한 키케로는 기원전 46년부터 저술에 몰두하였다. 기원전 46년부터 45년 사이에 출간된 중요한 작품들 중에서 수사학에 관한 것으로 『브루투스』, 『웅변가』가 있고,[7] 철학의 주요 주제에 관한 연작으로는 『호르텐시우스』, 『최고선악론』, 『투스쿨룸에서의 대화』,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예언에 관하여』, 『운명에 관하여』 등이 있다. 키케로는 자신의 철학적 작품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예언에 관하여』 제2권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나는 『호르텐시우스』(*Hortensius*)라는 책에서 최대한의 열성을 갖고 철학 연구의 중요성을 옹호하였다. 그리고 총 네 권의 『학술논문』(*Academics*)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오만하지 않은 동시에 가장 일관되며 세련된 철학적 체계를 제시하였다. 철학의 기초는 선과 악의 구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주제를 다섯 권으로 구성된 『최고선과 최고악』(*On the Chief Good and Evil*)에서 빠짐없이 다루었고, 또한 다양한 철학자들의 상반된 관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역시 다섯 권으로 구성된 『투스쿨룸에서의 대화』(*Tusculan Disputations*)가 있는데, 이 작품은 행복한 삶에 이르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권은 죽음에 대한 무관심을, 2권은 고통을 참는 방법을, 3권은 슬픔을 완화하는 법을, 4권은 기타의 정신적 혼란을 완화하는 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5권은 철학을 전 분야에 걸쳐서 가장 밝게 비쳐주고 있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빛을 발하는 이유는 이 주제가 덕은 그자체로서 행복을 보장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위에 거론된 작품을 출간한 후, 나는 총 세권으로 된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On the Nature of the God*)의 집필을 마쳤는데, 이 작품은 이 제목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주제를 단순화하면서 확장시킬 목적을 가지고 나는 현재의 작품 『예언에 관하여』(*On Divination*)를 저술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운명에 관한 작품을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계획이 수행되었을 때, 내가 다루고 있는 특별한 철학이 갖고 있는 모든 측면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On Divination*, II. 1-3).[8]

---

7) 『웅변가에 관하여』와 『웅변가』는 서로 다른 저서이다.

8) 키케로의 저작에 관한 인용은 하바드대학교에서 출판한 로엡(Loeb)판 키케로 전집을 따르기로 한다. 예를 들어 II. 1은 2권의 1문단을 말한다. 키케로의 작품명은 독자의 이

물론 키케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예언에 관하여』를 완성하였을 뿐 아니라, 『운명에 관하여』도 저술하였다. 자기의 친구 아티쿠스(Titus Pomponius Atticus, 110-32 B.C.)[9]에게 헌정했던 『노년에 관하여』는 카이사르가 살해되기 직전에 저술 되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등의 공화파 정치가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키케로는 로마의 정치적 공황기를 이용하여 정계에 복귀할 기회를 가졌으나, 당시 집정관인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 사이에 발생한 권력쟁탈전에 휘말려서 정치적 주도권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키케로는 불안감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 아테네에 유학하고 있는 아들 마르쿠스를 위해 『의무에 관하여』(*On Duties*)를 저술했고, 자기의 친구 아티쿠스에게 헌정하는 『우정에 관하여』를 저술했으며, 안토니우스에 대한 강한 정치적 적대감을 표현하고자 14차례에 걸쳐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문은 『필리피카』(*Phillipics*)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10] 기원전 43년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사이에 제2차 삼두정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키케로를 처벌대상자로 지목했다. 키케로는 처벌을 피해 도피하다가 같은 해 12월 7일 안토니우스의 병사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앞에서 언급된 키케로의 작품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사학에 관련된 작품으로 『웅변가에 관하여』, 『브루투스』, 『웅변가』가 포함된다. 둘째, 철학에 관련된 작품으로 『국가에 관하여』, 『법률에 관하여』, 『호르텐시우스』, 『학술논문』, 『최고선과 최고악』, 『투스쿨룸에서의 대화』,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예언에 관하여』, 『운명에 관하여』, 『노년에 관하여』, 『의무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가 포함된다. 키케로는 정치가는 수사학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해를 위해 영어로 쓰기로 한다.

9) 아티쿠스는 키케로의 절친한 친구였다. 키케로는 아티쿠스에게 400여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키케로와 로마를 보다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아티쿠스는 에피쿠로스 학파로서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키케로는 아카데미학파, 소요학파, 스토아학파의 사상을 수용했으나, 에피쿠로스학파의 사상은 배격했다.

10) 키케로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을 공격한 아테네의 웅변가인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의 연설에서 그 이름을 빌려 자신의 연설을 필리피카라고 했다.

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학에 관련된 작품 모두는 정치철학과 연관되지만, 이러한 작품 중에서 특히 초기 작품인 『웅변가에 관해서』는 이상적인 웅변가, 다시 말해 "이상적인 정치가"가 구사해야 하는 수사학의 기술을 논의한 작품으로,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치철학을 준비하는 정치철학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과 관련된 작품 중 정치철학 관련된 작품은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 이외에 『의무에 관하여』를 손꼽을 수 있다. 『의무에 관하여』에서는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키케로의 아들과 같이 정치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시민의 덕목이 함양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키케로는 플라톤이 제시한 4주덕 — 지혜, 정의, 용기, 절제 — 과 유사하게 지혜(*sapientiam*), 신중함(*prudientiam*), 정의(*iustitia*), 자선(*liberalitate*), 용기(*fortitudo*), 고매한 정신(*magnitudine animi*), 데코룸(*decorum*),[11] 절제(*temperantia*) 등의 덕목들을 "이상적인 정치가"가 지녀야 할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키케로의 정치철학을 구성하는 핵심적 작품은 물론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이지만, 『웅변에 관하여』와 『의무에 관하여』의 두 작품도 그의 정치철학을 이해하는 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 관하여』의 주제는 최상의 국가와 최상의 시민에 관한 것이고, 『법률에 관하여』의 주제는 최상의 국가가 지녀야 할 최상의 법률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 관하여』나 『법률에 관하여』가 완전한 형태로 후대로 전수된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이 망실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상의 국가에 존재하는 정치가의 모습이나 시민교육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상적인 정치가의 자질과 임무에 관하여 논의가 예정되었던 『국가에 관하여』의 제5권은 상당히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플라톤의 철인왕"에 대비되는 "키케로의 정치가"의 모습을 확연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웅변가에 관하여』를 통하여 정치가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의무에 관하여』를 통하여 시민교육의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기원전 55-54년에 쓰여진 『웅변가에 관하여』는 수사학의 기법에 관한 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보다 명백한 주제는 최상의 웅변가에 관한 것이다. 최

11) 데코룸은 개인의 의식이나 행위가 수치심, 질서, 자기통제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데코룸은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옷을 입거나 등등을 함에 있어서 내적인 감정이나 외적인 모양새가 적절함을 의미한다.

상의 웅변가는 법정, 민회, 원로원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웅변가는 실제적으로 정치가라고 할 수 있다(Atkins 2000, 487). 『웅변가에 관하여』에서 주요 화자로 등장하는 크라수스와 안토니우스는 최상의 웅변가는 정치철학, 윤리학, 심리학 등에 조예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법적인 소송을 위해 필요한 수사학의 기술만 습득해도 좋은지에 관해 논쟁을 벌인다. 크라수스는 웅변가는 철학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안토니우스는 웅변가는 수사적 기술만 갖추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화편에서 크라수스는 키케로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키케로는 웅변가가 철학자로 남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웅변가는 철학적 지혜를 갖추어야 하지만, 그는 이 지혜를 가지고 소수의 철학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설을 통해 원로원의 의원과 다수의 시민의 감정을 움직여서 그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키케로에 있어 최상의 웅변가는 철학자이기보다는 정치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의무에 관하여』는 대화의 형식이 아니라 키케로가 아들에게 보내는 서간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에서는 "도덕적 선(*honestas*)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라는 본질적 질문이 제기되면서, 플라톤이 제시한 지혜, 정의, 용기, 절제라는 4 주덕을 중심으로 질문에 대한 답이 찾아지고 있다. 2권은 "무엇이 유용한가?" 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으며, 3권은 도덕적 선과 유용성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개별 사례에 대한 논의 및 그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키케로는 수사학과 철학에 관한 작품 외에도 자신이 재판에 참가하여 행한 변론의 내용을 담은 변론집과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아티쿠스에게 보내는 편지 426통을 포함하여 총 931통의 편지를 남겼다.[12] 아티쿠스는 키케로의 사후 총 16권으로 구성된 서간문집을 출간하였다. 우리는 서간문집을 통하여 키케로의 개인적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케로 당대에 로마정치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서간문집은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키케로가 어떤 심리상태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당대 로마의 정치사회에서

12) 로엡판 키케로 전집은 총 2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집은 수사학 작품, 변론집, 철학 작품, 서간문의 4범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수사학 작품은 5권, 변론집은 10권, 철학 작품은 6권, 서간문은 7권으로 구성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 서간문집이 없었더라면 로마 공화국의 원로원 정치에 관한 중요한 역사가 어둠 속에 묻혀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III. 키케로와 플라톤

키케로의 플라톤에 대한 숭배는 열광적이었다. 키케로는 플라톤을 언급할 때 많은 경우 "내가 사랑하는 플라톤"(my beloved Plato)이라는 표현을 잊지 않았다. 그는 플라톤을 "모든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the greatest of all philosophers)" (*Laws*, II. 14) "철학자들의 신(a philosophers' god)" (*On the Nature of the Gods*, II. 32) "최고 위상의 철학자(the first of all philosophers in rank)" (*On the Chief Good and Evil*, V. 7)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키케로는 자기의 작품 속에서 플라톤의 대화편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인용하거나 발췌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플라톤의 대화편을 대부분 읽고 연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가 즐겨 인용하는 플라톤의 대화편은 『국가』와 『법률』은 물론 포함해서, 『변명』 『파이돈』 『파이드러스』 『고르기아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플라톤의 주요 작품인 『파르메니데스』 『소피스트』 『정치가』 등은 키케로가 알지 못하거나 읽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Long 1995, 44).

플라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했던 키케로이지만, 키케로는 플라톤의 대화편인 『국가』와 『법률』의 관계를 처음부터 잘못 파악했다. 플라톤에 있어서 『국가』와 『법률』은 이상국가의 추구라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방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키케로는 『법률』은 『국가』에 종속된 대화편으로 파악하면서, 『법률』은 『국가』에서 제시된 이상국가가 지녀야 되는 법에 관한 대화편으로 이해하고 있다. 키케로는 두 대화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플라톤과 같은 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고 모든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국가에 관한 책을 먼저 썼으며, 후에 이 국가의 법을 기술하는 별개의 책을 썼다(*Laws* II. 14)."[13] 키케로는 이러한 관점

13) 같은 내용이 *Laws* I-15에도 아티쿠스의 말을 통해 나오고 있다. 『국가에 관하여』와 『법

에 입각해서 자신의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를 저술했는데, 그의 『법률에 관하여』는 『국가에 관하여』에서 이상국가로 제시된 로마공화국이 구체적으로 지녀야 할 종교법, 행정관의 의무와 제한에 관한 법, 원로원과 민회에 관한 법 등을 서술하고 있다.

만약 키케로의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가 보다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면, 키케로의 정치철학은 후대에 보다 나은 평가를 받았을 지도 모르며, 또한 우리는 보다 체계적으로 키케로의 정치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 대화편은 매우 불완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국가에 관하여』는 "스키피오의 꿈"(Scipio's Dream)과 기타 후대의 작가들이 자신들의 저작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망실되었었다. 1820년에 당시 바티칸 도서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안젤로 마이 추기경(Cardinal Angelo Mai)이 "시편"에 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이 그 위에 적힌 양피지 사본에서 『국가에 관하여』 전편의 1/4 내지 1/3에 달하는 부분을 발견했다. 앰브로시우스(Macrobius Ambrosius Theodosius, fl. 395–423), 락탄티우스(Lactantius Firmianus, 260–340), 성 아우구스티누스(Saint Augustinus, 354–430)들은 자신들의 저작에서 키케로의 『국가에 관하여』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요약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록의 편린들과 양피지 내용, 그리고 "스키피오의 꿈"이 결합되고 재구성되어서 현재의 『국가에 관하여』의 원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 양은 『국가에 관하여』 전편의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법률에 관하여』는 기원전 52년부터 저술되기 시작하였으나, 언제 출간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현재 1, 2, 3권 및 5권에서 인용된 한 문장 정도의 단편이 남아 있는데, 제1권과 제2권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고 제3권은 상대적으로 온전치 못한 형태로 남아 있다. 키케로가 몇 권까지 출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법률에 관하여』의 제5권에서 인용된 문장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법률에 관하여』은 적어도 5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학자들은 총 6권 혹은 8권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률에 관하여』에 나오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구어체로 번역이 되어야 하나, 본 논문에서서는 대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한국적인 존대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설법 문어체로 번역하고자 한다.

키케로가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에서 플라톤을 모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키케로가 모든 면에서 플라톤을 모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모든 면에서 모방했다면, 키케로는 단순히 플라톤의 작품들을 번역하는데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순수한 번역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법률에 관하여』의 2권에서 키케로가 제시하고 있는 "전문"(proem)이 플라톤이 쓴 『법률』의 전문과 달리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는 퀸투스의 지적에 대해, 키케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독창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나 미래를 불문하고 누가 감히 플라톤을 모방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번역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자 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동일한 생각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Laws*, II. 17)?" 자신이 플라톤을 모방하고 있다고 공언하면서도 자신의 독창성을 견지하고 싶어 하는 키케로가 어떤 면에서 플라톤을 모방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의 정치철학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긴요하다.

키케로가 『국가에 관하여』에서 플라톤을 모방하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대화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둘째, 대화편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나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인물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14] 셋째, 신성한 축제기간 동안에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 넷째 그 주제로서 최상의 국가와 최상의 시민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그 내용으로 정의와 부정의에 관한 논쟁 및 정부형태, 이상적 정치가, 교육, 연극의 영향 등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다는 점, 여섯째, 현세의 경계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사후세계의 신비한 경험에 대한 설명으로 대화편이 종결된다는 점 등에서 그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Republic*, Translator's introduction, 7). 이러한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케로의 『국가에 관하여』에는 첫째, 플라톤의 정치철학을 특징적으로 잘 대변해 주는 "동굴의 우화" 및 "좋

14) 대화편의 화자는 스키피오, 라일리우스, 필루스, 마닐리우스, 투베로, 루푸스, 무니우스, 파니우스, 스카이볼라 이다. 이들은 흔히 스키피오 그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영어로 쓰면 다음과 같다: Publius Cornelius Scipio Africanus the Younger, Gaius Laelius, Lucius Furius Philus, Manius Manilius, Quintus Allius Tubero, Publius Rutilius Rufus, Spurius Mummius, Caius Fannius, Quintus Mucius Scaevola. 스키피오가 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라일리우스와 필루스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화자들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음의 이데아"에 대한 언급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둘째, 남녀평등, 처자식의 공유, 재산의 공유, 철인왕의 등장으로 수립되는 플라톤의 이상국가와는 달리, 키케로는 혼합정의 형태를 갖춘 로마공화국을 이상국가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플라톤의 『국가』와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상의 차이점 외에, 키케로의 『국가에 관하여』와 플라톤의 『국가』는 책의 구성 형식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 키케로의 『국가에 관하여』는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화는 3일간 행해진 것으로 되어 있다. 1, 2권은 첫째 날, 3, 4권은 둘째 날, 5, 6권을 셋째 날에 이루어졌고,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1, 3, 5권 앞에는 키케로 자신의 "서언"(preface)이 실려 있다. 이러한 책의 구성형식은 플라톤의 『국가』의 구성형식과 대비되는데, 총10권으로 구성된 플라톤의 『국가』는 플라톤 자신의 서언은 물론 없으며, 대화는 축제날 오후 반나절 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키케로의 『국가에 관하여』의 앞 세권은 최상의 국가에 관해, 뒤 세권은 최고의 시민에 관해 논하고 있다. 첫째 날의 분석은 국가의 최상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는데, 제1권은 세 가지 대표적 정체인 민주정, 귀족정, 왕정이 지닌 강점과 약점을 논의하고 있다. 주요 화자인 스키피오는 국가의 안정은 세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한 정체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제2권은 로마가 생성된 이후 혼합정체를 구현했을 때까지의 역사가 기술되고 있다. 스키피오는 로마공화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서술하면서,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추상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서 발전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날의 대화록인 3권과 4권에서는 정의(justice)와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이 거론되면서, 정의에 근거한 정치체제만이 정당성을 가지고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셋째 날의 대화록인 5권과 6권에서는 최고의 시민에 관한 논의 다시 말해 이상적인 정치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가의 훈련과 교육 및 정치가가 위기에 처해서 수행해야 할 행위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5권과 6권의 내용이 상당히 단편적으로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체계성을 띠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노정한다. 6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스키피오의 꿈"은 『국가에 관하여』의 종결부를 구성하는데, 이 "스키피오의 꿈"은 플라톤의 『국가』 10권에 나오는 "에르의 신화"(Myth of Er)를 모방하고 있다.

키케로의 『법률에 관하여』 역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플라톤의 『법률』을 모방하고 있다. 첫째, 플라톤의 『법률』은 세 사람의 화자의 대화, 즉 아테네에서 온 이방인, 크레타에서 온 이방인 클레이니어스(Kleinias), 스파르타에서 온 이방인 메길러스(Megillus)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키케로의 『법률에 관하여』 역시 세 사람의 화자의 대화, 즉 키케로, 키케로의 동생인 퀸투스, 그리고 키케로의 친구인 아티쿠스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플라톤의 『법률』이 한 여름의 어느 날인가에 크노소스에서 출발하여 제우스 동굴로 걸어가는 세 화자의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키케로의 『법률에 관하여』 역시 여름 어느 날인가에 아르피눔에 있는 키케로의 시골농장 주변을 걸어가는 세 화자의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1권에서 화자들은 농장의 작은 숲에서부터 출발하여 리시스강의 둑을 따라서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제2권과 3권에서는 화자들은 피브레누스강에 있는 섬에서 대화를 나눈다. 제5권의 단편은 화자들이 다시 리시스강의 둑으로 돌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보여준다.[15] 제1권은 스토아학파의 관점에서 정의의 원천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권은 최선의 국가에서의 종교법에 관해서, 제3권은 행정관에 관한 법률을 기술하고 있다. 셋째, 키케로는 『법률에 관하여』에서 대화의 배경에 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아티쿠스 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테네에서 온 이방인의 말로 시작되는 플라톤의 『법률』과 같은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16]

키케로의 『법률에 관하여』가 플라톤의 『법률』과 크게 다른 점은, 첫째, 앞에서 지적했듯이, 키케로는 자신의 『법률에 관하여』에서 플라톤처럼 새로운 이상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국가에 관하여』에서 이미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규정된 로마공화국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15) 플라톤은 대화편의 주제와 그 주제가 논의되는 주변의 자연 환경을 연관시키고 있다. 『법률』과 『파이드러스』는 주제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어우러지고 있는 대표적인 대화편이다. 키케로 역시 플라톤을 모방하여 『법률에 관하여』에서 자연법 및 자연적 정의에 관한 대화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16) 플라톤의 『법률』은 아테네에서 온 이방인이 크레타에서 온 이방인인 클레이니어스와 스파르타에서 온 이방인인 메길러스에게 신이 크레타의 법을 부여했는지 아니면 인간이 부여했는지를 묻고, 이에 대해 클레이니어스가 크레타에서는 제우스가, 스파르타에서는 아폴로가 각각 법을 부여했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김용민(1995, 163) 참조.

다. 플라톤에 있어서 『국가』와 『법률』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대등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키케로에 있어서 『법률에 관하여』는 『국가에 관하여』에 종속된 하나의 속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플라톤의 『법률』에 있어 아테네에서 온 이방인이 제안하고 있는 "야간위원회"(Nocturnal Council)는 이상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통치기구로 등장하고 있으나, 키케로의 『법률에 관하여』은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로마공화국이 이러한 통치기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셋째, 키케로의 『법률에 관하여』가 불완전한 형태로 전해 내려오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덕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이 플라톤의 『법률』과는 달리 제시되어 있지 않다. 넷째, 책 구성상의 차이에 관한 문제로, 플라톤의 『법률』은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키케로의 법률은 5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분명하지만, 총12권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획되지 않았음은 확실하다.

위에서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의 두 대화편을 중심으로, 키케로가 플라톤을 모방한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살펴보았지만, 키케로의 독창성은 플라톤을 "로마인의 관점"에서 모방하고 있다는 데 존재한다. 키케로는 "로마인의 관점"을 통해 한편으로는 플라톤을 모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플라톤과 결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철학적 시각을 얻고자 했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그를 학자들은 흔히 "로마인 플라톤"(Roman Plato)라고 부른다. 키케로는 『국가에 관하여』에서 스키피오의 말을 통해 로마인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 나는 가장 위대하고 현명한 그리스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에 만족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나는 내 의견이 그리스인들보다 낫다고 평가할 만큼 무모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그리스의 전문가들에 관해 무지하지 않고, 이 국가라는 주제에 관해 그리스인의 관점을 로마인의 관점보다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듣기를 원한다. 오히려 나는 내 말을 아버지의 교양교육에 관한 배려에 의해 키워졌고 어릴 때부터 지식을 추구하기를 즐겨했을 뿐 아니라, 책보다는 가정교육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격률에 의해 훈련된 그러한 한 사람의 로마인(a Roman)이 말하는 것으로 듣기를 원한다(*Republic*, I. 36).

위 인용문에서 스키피오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플라톤의 『국가』이다. 위에서 스키피오는 특히 플라톤의 『국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스키피오가 그리스인들의 작품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요 화자인 한 사람인 라일리우스의 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국가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 감히 타인이 뛰어 넘을 수 없는 작품들을 쓴 저 유명한 철학자(플라톤을 말함-필자)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 무소유의 땅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가 세운 이상국가는 아마도 탁월한 것일지는 몰라도, 이 국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과 습관에 매우 적합하지 않다. 그의 계승자들(아리스토텔레스, 테오프라스투스 등을 포함함-필자)은 확정적인 실례나 모델을 제시함이 없이 다양한 국가의 형태 및 기본원칙을 논의하고 있다(*Republic,* II. 21-22).

키케로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은 다양한 국가 형태들을 비교하고 있을 뿐, 자기가 로마공화국을 이상국가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한 국가를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키케로가 추구하고 있는 로마인의 관점은 그리스인들의 지식과 로마인의 경험과 격률을 겸비한 가운데, 로마인의 실제적 삶과 습관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로마공화국의 역사에서, 이상적인 국가의 실례나 모델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로마인의 관점에서 기술된 『국가에 관하여』와 『법률에 관하여』에서, 고대정치철학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키케로의 독창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 두 절에서는 이 두 대화편에 나타난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키케로의 정치철학적 공헌을 살펴보도록 한다.

IV. 키케로의 『국가에 관하여』: 자유, 재산, 혼합정체를 중심으로

『국가에 관하여』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배경은 스키피오가 죽기 얼마 전, 오랜 삶이 끝나가던 기원전 129년의 어느 공휴일 기간이다.[17] 무대는 스키피

오의 농촌 농장이며, 스키피오가 방문객인 투베로(Tubero)가 꺼낸 화제인 하늘에 떠 있는 두 개의 태양에 관해 얘기하는 것으로 대화는 시작된다. 스키피오의 평생 친구인 현자 라일리우스를 비롯하여 더 많은 방문객이 도착하고, 두 개의 태양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우주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 계속된다. 하지만 이 질문에 관해 더 이상 논의해봤자 우주에 관해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도 없고, 설혹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식은 결코 우리의 삶을 좋게 해주거나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질문에 관한 논의는 중단된다.[18] 이제 대화의 주제는 우주에 관한 것에서부터 정치에 관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데, 그 전환점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정치에 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 지식은 우리의 삶을 "좋고 행복하게" (better and happier) 만들어 주고 있다는 논거이다.

키케로는 정치에 관한 지식을 국가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국가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는 우선 재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스키피오는 다음과 같이 국가를 정의한다.

> 국가는 인민의 재산이다(*res publica res populi*). 그러나 인민은 무작정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justice) 및 선의 공동체(partnership for the common good)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수의 사람들의 결사이다. 결사를 형성하는 최초의 원인은 개인의 위약성이라기보다는 자연이 인간에게 심어준 어떤 종류의 사회정신이다(*Republic,* I. 39).

---

17) 이 대화편의 주요 화자는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아프리카누스인데 흔히 소 스키피오로 불린다. 소 스키피오는 기원전 204년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격퇴시켰던 위대한 아프리카누스의 입양 손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원전 129년은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기원전 133년에 제출한 농지개혁법안으로 인해 야기된 평민과 귀족간의 정치적 대립이 가열화 되고 있던 시기였다. 역사적 인물인 소 스키피오는 『국가에 관하여』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죽었는데, 소 스키피오는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플라톤의 대화편인 『파이돈』이 키케로의 『국가에 관하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키케로는 애국심이 없었다면 로마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로 『국가에 관하여』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

18) 소크라테스는 항상 사물의 유용성(usefulness)에 관심을 가졌다. 키케로 역시 이런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의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의무에 관하여』에서 기술되고 있는 국가의 설립목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국가 행정을 담당해야 할 사람이 제일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각자 자기의 것을 소유하게 하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에 의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왜냐하면 각자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공화국 제도와 시민공동체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록 인간은 자연이 부여한 인간 본성에 따라 본능적으로 한데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각자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그들은 도시의 보호를 받고자 했던 것이다(*On Duties*, II-73).

앞의 인용문의 첫 구절인 "*res pulica res populi*"는 정확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19] "*res publica*"에서 "*res*"는 일, 사물 등을 의미하고 "*publica*"는 공공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두 단어가 합쳐진 *res publica*는 공적인 것, 공적인 일 등을 표현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용어는 공적인 것을 대표하고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키케로는 사람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인민(*populi*)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정의와 선의 공동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동의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로, 우선 키케로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제시된, 약한 사람들이 타인들로부터의 부정의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 정의를 만들고 국가를 이루었다는 글라우콘의 주장을 반대한다. 그 대신 키케로는 사람들이 지닌 본능적인 "사회정신"으로 인해 사람들의 결합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한 국가의 인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민은 정의 및 선의 공동체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정치적인(pre-political) 사람들의 무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여기서 정의는 법의 형태로서 인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선의 공동체는 인민들의 이득을 보장한다. 인민들의 권리와 이득의 보장은, 위의 『의무에 관하여』에서의 인용문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보다 구체적으로 사유재산의 보장으로 나타난다.

인민의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국가를 정의하는 데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

---

19) 이 구절은 영어로 흔히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a commonwealth is the property of a people."

고, 사유재산의 보호를 국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키케로의 관점은 자신의 이상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있는 플라톤의 관점이나, 재산을 국가에 있어서 배경적 조건으로만 취급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것이다(Radford 2002, 30). 사유재산의 보호를 국가의 목적으로 부각시키는 키케로의 시도는 근대정치사상가인 존 로크의 시도를 연상시킬 수 있을 만큼 근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키케로의 재산개념을 자유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때, 키케로의 정치철학이 지닌 근대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맬컴 쇼필드(Malcolm Schofield)는 키케로가 "*res*(property)"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실물재산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인민의 자유"라는 개념을 포용할 수 있도록 은유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chofield 1995, 75). 필자는 쇼필드의 주장에 동의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키케로는 자유와 재산의 개념을 정치학에 있어서 핵심개념으로 부각시킨 최초의 고대정치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키케로는 인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는 정치체제는 그것이 왕정이든, 귀족정이든, 민주정이든 상관없이, 모두 정당한 정치체제로 본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인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지 못하는 타락된 정치체제, 즉 왕정의 타락한 형태인 참주정, 귀족정의 타락한 형태인 과두정, 민주정의 타락한 형태인 중우정은 모두 정당하지 않은 정치체제로서, 이러한 체제를 지닌 국가는 국가라고조차 할 수 없다. 키케로는 세 가지의 순수한 정치체제 중에서 현명한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왕정이 최선의 정치체제이긴 하지만, 왕정에서는 현명한 사람의 왕위계승이 보장되지 않고, 인민들이 법의 심의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배제되고, 인민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덕과 능력을 갖춘 소수의 귀족에 의해 통치되는 귀족정은 차선의 정치체제인데, 이 체제는 인민이 법의 심의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배제되어 있고, 자유를 별로 누릴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가 부재하고, 인민이 지도자의 덕과 능력이 아니라 부, 영향력, 관계 등에 의해 크게 정치적으로 좌우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당하지만 가장 나쁜 정치체제인 민주정은, 한편으로는 인민이 심의과정에 참가하고,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평등한 시민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지닌 덕이나 탁월함이 평등성의 강조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의 실패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결국에는 분열로 치닫는 강한 경향을 노정한다는 약

점을 지닌다.

키케로는 순수한 정치체제가 지닌 가장 큰 약점으로 각 체제가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public*, I. 60). 그가 이상국가를 설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시 한 요소는 바로 체제의 안정성인데, 그는 혼합정체에서는 안정성은 물론 어떤 종류의 평등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스키피오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왕정은 세 가지의 기본적 형태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이지만, 세 가지 훌륭하고 순수한 형태를 혼합하여 만든 제한적이고 균형 잡힌 정부형태가 왕정보다 낫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왜냐하면 국가에는 최고의 왕권적 요소가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권력은 귀족에게 허용되어야 하며, 어떤 사안들은 대중들의 판단과 욕망에 맡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constitution)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종류의 평등성을 높은 수준에서 제공하는데, 이 평등성은 그것 없이는 자유인이 상당기간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국제는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거론된 순수한 정부형태는 각 형태에 상응하는 타락된 형태로 쉽사리 변화하기 때문인데, 왕은 참주로 대체되고, 귀족은 과두적인 파당으로 대체되고, 인민은 대중이나 무정부상태로 대체된다. 순수한 형태는 흔하게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데 비하여, 이러한 변화는 혼합되고 골고루 균형이 잡힌 국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치계급이 심대한 실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Republic*, I. 69).

키케로는 『국가에 관하여』에서 스키피오의 입을 통해 로마가 역사적 발전을 통해 혼합정체를 만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20] 그 설명에 의하면 로마공화국은 한 사람의 천재가 아닌 다수의 천재에 기반하여 세워졌고, 여러 세기, 여러 세대에 걸친 오랜 기간에 만들어졌으며, 또한 왕권적 요소, 귀족적 요소, 인민적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혼합정체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집정관은 로마에게 왕권적 요소를 제공했는데, 이들은 임페리움(*imperium*)이라는 집행권을 행사했으며, 다수 대

---

20) 키케로의 혼합정체이론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폴리비우스(Polybius, c.199-118 B. C.)이다. 키케로는 폴리비우스의 작품 『역사』(*Histories*)를 통해 로마의 역사 및 정치체제 분류 방법 등을 배웠다. 역사적으로 폴리비우스는 소 스키피오의 스승이었으며, 스키피오의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원정에 동참해서 군사적 조언을 하기도 했다.

중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원로원은 정책에 대한 조언(*consilium*)을 제공하는 현명한 귀족 위원회였다. 행정관을 선출하고 법을 통과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인민은 진정한 자유(*libertas*)를 향유했다. 이처럼 원로원의 조언, 인민의 자유, 그리고 집정관의 집행권은 로마공화국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나타난다.

혼합정체를 구성하는 요소 중, 키케로가 가장 중요시 한 것은 원로원의 조언권이었는데, 그는 인민보다는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혼합정체를 원했다. 이 혼합정체에 있어서 임페리움은 집정관의 1년이라는 짧은 재임기간과 2명이라는 복수성 때문에 통제가 가능해 진다. 키케로는 인민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는 우선적으로 인민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인민의 자유는 중우정치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한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키케로는 재산을 신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도 신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귀족에게 자유를 신탁하는 방법으로 인민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민들이 자신들과 귀족 사이에 형성된 신뢰(*fides*)에 기반하여 재산과 자유를 자기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주권을 귀족에게 신탁하고, 귀족들의 지도를 받는다면, 인민들의 자유는 "신분질서에 입각한 품위 있는 평화"(*cum dignitate otium:* peace with dignity) 속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민들의 수호자인 호민관은 귀족에 대항하여 인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귀족의 입장에서 볼 때 호민관은 귀족을 대신하여 인민의 극단적인 자유나 폭력적인 성향을 인민의 이름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Laws,* III. 24).

키케로의 혼합정체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체이론과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세력과 부를 소유하지 못한 세력의 혼합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직자를 충원함에 있어서 관직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면 민주제의 충원 원칙인 추첨제도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귀족제의 충원 원칙인 선출제도를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장군을 충원할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선출을 해야 하고, 배심원을 뽑을 때는 추첨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키케로는 한 국가의 권력을 구성하는 핵심 세력을 왕, 귀족, 인민 셋으로 나누고, 이 세 세력이 행사하는 권력의 본질 및 각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자신의 혼합정치이론에서 밝히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키케로는 "자유의 신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데, 이 개념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체이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이다. 로마공화국의 인민들은 자유를 "양도"하지 않고 "신탁"하는데, 자유를 신탁 받은 귀족은 인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할 도덕적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귀족들이 이 의무를 등한시 할 때, 인민들은 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면에서 키케로의 신탁의 개념은 문제점을 갖게 된다. 키케로의 혼합정체이론은 귀족의 덕성과 도덕성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그는 원로원이 도덕성을 갖춤으로써 당대의 로마가 건전한 공화국에서 타락한 제정으로 바뀌고 있는 헌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가 아직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국가관에 집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의 신탁은 키케로의 독창적 개념이긴 하나, 당대 로마 정치의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었다.

V. 키케로의 『법률에 관하여』: 자연법과 정의를 중심으로

『법률에 관하여』은 아르피눔에 있는 키케로의 시골 농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상국가가 필요로 하는 법에 관해 키케로, 퀸투스, 아티쿠스 삼인의 대화를 담은 책이다.[21] 이들의 대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역사적 시기는 나타나 있지 않다. 대화는 키케로가 지은 "마리우스"라는 시에서 묘사된 오크나무가 아직도 저 앞에 보이는 농장에 살아 있다는 아티쿠스의 말로 시작된다. 키케로는 자신이 시인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오크나무는 시 안에 있을 뿐, 그것을 역사적 진실성이라는 판단기준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아티쿠스는 키케로가 보다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로마의 역사에 관해서 작품을 써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금의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시민법에 관해서 얘기해 줄 것을 한다. 키케로는 본격적으로 시민법에 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서문"(preface)으로서 자연법에 관한 얘기를 꺼낸다.

---

21) 작자인 키케로가 직접 화자로 등장하고 있는 면에서, 플라톤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는 플라톤의 대화편들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법률에 관하여』의 1권은 『국가에 관하여』에서 제시된 이상국가가 지녀야 할 구체적인 시민법에 관한 논의에 앞서 시민법의 "서문"으로서 자연법을 스토아학파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 전반부(I. 35까지)와, 정의는 자연에 내재하지 않고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타 그리스 학파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국가에 따라 각자 다른 정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하나의 정의 즉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가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후반부로 구성된다. 키케로는 『법률에 관하여』의 2, 3권에서 우선 구체적인 법률이 따라야 할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밝힌 "전문"(proem)에 관해 논의한 후, 이 "전문"의 하위 법률조항으로서 2권에서는 종교법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 — 종교의례, 제단, 사제의 임무, 제사, 축제, 운동시합 등 — 에 관한 법률을, 그리고 3권에는 집정관, 조영관, 검열관, 재무관, 호민관을 포함하는 여러 행정관직에 대한 규정 법률을 다루고 있다.[22] 키케로는 여기서 다루는 법들이 역사적으로 로마공화국의 제정법에 드러난 것도 있지만, 기존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신이 고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관하여』의 전반적 내용에서 볼 때 2, 3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구체적인 시민법이 1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원한 자연법과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키케로가 『법률에 관하여』에서 고대정치철학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첫째,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자연법에서 정의의 원칙을 찾고 여기서 시민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토아학파는 자연법에 관해서만 논의했을 뿐, 그것을 시민법의 제정과 연관시키려하지 않았는데 비하여, 키케로는 이 두 법을 연관시키고 있고, 시민법에도 자연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 법사상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은 『법률』의 제10권에서 신의 존재와 신의 섭리에 대한 증명을 하여 신학을 법의 전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지만(Strauss 1975), 이 전문과 구체적인 법률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둘째, 인간이 도덕적으로

22) 플라톤에 따르면 법률은 전문과 구체적 법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문으로 구성된다. 『법률에 관하여』의 내용상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볼 때 1권은 전문으로 나머지 2, 3권은 본문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고, 2, 3권만 따로 떼어 볼 때 2권 전반부에 거론되고 있는 전문은 말 그대로 전문으로 존재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 법률 조항을 다루는 나머지 부분은 본문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평등하다는 스토아학파의 주장에 근거하여 인간은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관념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점이다. 물론 인간이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주장은 근대사상가들에 의해서 확립되었지만, 키케로는 자연법에서 시민법을 도출하면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률적 기초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근대의 법평등주의이론 및 법과 국가에 관한 자연법이론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자연법과 정의란 개념을 중심으로 키케로의 법사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키케로는 『법률에 관하여』의 전문인 1권의 전반부에서 "정의는 자연에 내재한다"라는 명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명제를 통해 보편적 정의인 자연법을 일차적으로 다룰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시민법, 로마법도 다룰 것을 밝히고 있다.

> 지금 현재의 탐구에 있어서 우리는 시민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작고 좁은 구석에 처박아 놓고 보편적 정의와 법의 전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정의의 성격을 설명해야 하고, 이 성격은 인간 본성에서 찾아져야 한다. 우리는 국가를 통치하는 법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 그런 후에 우리는 이미 만들어졌고 기록되어 있는 법령과 조례를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로마인의 시민법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법은 이러한 법령과 조례 속에서 반드시 찾을 수 있다(*Laws*, I. 17).

키케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자연법의 본질과 그 위상에 관해 『국가에 관하여』에서 라일리우스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히 밝히고 있다.

> 진정한 법은 자연과 일치되는 올바른 이성이다; 진정한 법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진정한 법은 명령함으로써 의무에 복종하게 하고, 금지함으로써 악행에서 벗어나게 한다. 진정한 법은 명령과 금지를 선한 사람에게 쓸데없이 부과하지 않지만, 명령과 금지는 악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이 법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죄이며, 이 법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철회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으며, 또한 이 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로원이나 인민들일지라고 우리들을 이 법의 규정에서 방면할 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 밖에서 이 법의 해설자나 해석자를 찾을 필요도 없다. 로마의 법과 아테네의 법이 다르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법과 미래의 법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단지 모든 국가와 시대에 적합한 영원하고 불변하는 법이 있을 것이며, 또

> 한 우리 모두에 군림하는 유일한 주인이며 지배자인 신만이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신이야말로 이 법의 창제자이며, 반포자이며, 실행을 강제하는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불복종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는 사람이며 자신의 본성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이러한 사람은 흔히 처벌이라고 간주되는 것을 피한다하더라도 가장 최악의 형벌로 고통 받게 된다(*Republic*, III. 33).

키케로에 있어 진정한 법은 자연법이며, 자연법은 올바른 이성과 일치하며, 정의와 일치한다. 또한 자연법은 보편적이며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모든 국가와 시대에 적합한 영원하고 불변하는 법인데, 이 자연법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자연법은 신법이자, 이성의 법이자, 정의의 법인 것으로 나타난다. 키케로는 자연법적 정의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하였지만, 그는 이러한 국가가 현실세계에 실현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 자연법은 오직 현명한 철학자에게는 제1원칙으로 인식될 수 있을 뿐, 무지한 일반 대중에게 인식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자연법이 모든 시민에게 이해가 되면서 실천이 되고 있는 정치공동체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현실에서 실현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듯이, 키케로 역시 자연법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사회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Holton 1987, 170). 그는 신적인 자연법(논의의 편의상 이것을 1차적 자연법이라고 한다) 대신에 인간적인 자연법(논의의 편의상 이것을 2차적 자연법이라고 한다)을 실현가능한 이상국가의 법률로 제안하고 있다.

1차적 자연법과 2차적 자연법은 전자가 자연 속에 내재하는 최고의 신적인 이성인데 비하여, 후자는 구체적 정치상황에 적용되어진 지혜로운 입법자의 이성이라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신과 지혜로운 입법자는 모두 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신과 입법자의 이성의 산물인 첫 번째 법과 두 번째 법 모두 자연법으로 자리 잡는다. 2차적 자연법은 시민법의 형태를 취하는데, 키케로는 올바른 시민법은 사람들의 막연한 생각의 결과이거나 민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 현명한 입법자가 자신의 이성에 입각해서 "명령과 금지"라는 자연법의 핵심개념을 현실의 정치상황에 적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았다(Holton 1987, 173). 그러나 로마가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부정의한 전쟁을 치러야 했

고, 키케로 자신이 카틸리나의 반란을 수습하기 위해 집정관의 막강한 권한을 부정의하게 사용해야만 했듯이, 현실정치는 정의에 의해서만 통치될 수 없음을 키케로는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순수한 정의를 내세우는 1차적 자연법과는 달리, 부정의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법은 1차적 자연법에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키케로의 기본적 입장이나, 키케로는 1차적 자연법에 위배되는 시민법도 자연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되는 관점에 빠지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키케로의 『법률에 관하여』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점은 1차적 자연법에서 2차적 자연법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도출되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키케로는 1차적 자연법과 2차적 자연법이 논리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데 실패하고 있지만, 2차적 자연법인 시민법이 어떤 정신에 입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의 형식을 빌어 말한다. 플라톤은 법은 전문과 법조항들로써 이루어지는데, "전문"은 구체적 법조항들을 시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을 지녔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키케로 역시 플라톤의 전문에 대한 관점을 계승하여, 시민들이 복종해야 할 시민법이 따라야 할 정신을 다음과 개진한다.

>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설득해야 한다: 신들은 모든 사물의 주인이자 지배자이다; 행해지는 모든 것은 신들의 의지와 권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들은 모든 개인의 성격을 관찰하고, 또한 그가 무엇을 하는지,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슨 의도와 어떤 경건함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인간에게 위대한 시혜자로 존재한다; 신들은 경건한 자와 불경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관념이 스며든 정신은 진실되고 유용한 의견을 확실하게 형성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다. 이성과 지성이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하늘이나 우주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이나, 또는 인간의 지성이 지닌 최상의 이성적 능력에 의해서도 별로 이해되기 힘든 사물들이 전혀 이성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이나 바보스러울 정도로 자만에 차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보다 진실된 것이 있겠는가? 진실로, 별들의 질서 잡힌 운행, 밤과 낮의 규칙적 교차, 계절의 부드러운 진행, 우리를 생존케 하는 땅의 산물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성을 지닌 모든 사물들은 이성이 없는 사물보다 위에 서있기 때문에, 또한 무엇인가가 보편적 자유보다도 위에 서있다고 하는 것

> 은 불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은 자연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맹세가 얼마나 자주 동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조약의 신성성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의 복지에 관련되며, 신성한 처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며, 불멸의 신이 재판관으로서나 목격자로서나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면 인간 공동체가 얼마나 신성한 결사체가 될 것인가를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감히 이러한 신념이 유용하다는 것을 부정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법의 전문이다. 이 전문이라는 용어는 플라톤이 사용한 바 있다(*Laws,* II. 15-16).

플라톤의 『법률』에서 아테네에서 온 이방인은 법률의 전문으로 신들에 관한 세 가지 명제를 충분한 증명과정을 거친 후에 제시한다. 첫째는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신들은 인간을 감독하고 배려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신들의 환심을 살 수 없다는 것이다(*Plato's Laws,* 907b). 위에서 인용된 키케로의 전문은 충분한 증명과정을 거침이 없이 신들의 본성이 어떤 지에 관해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바와 별로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용문의 끝 부분에서 키케로는 맹세, 조약의 신성성, 신성한 처벌, 재판관으로서의 신 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말하고 있는 시민종교의 신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23] 키케로는 상기 전문을 말한 이후 곧 바로 그 구체적 내용의 일부분으로 종교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키케로는 자연법에서 정의의 원칙을 찾고, 이 정의의 원칙에 맞는 시민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자연법만을 논한 스토아학파나, 자연법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지니지 않고 구체적인 법률쟁송과 관련하여 시민법이라는 "작고 좁은 구석"에 처박혀서 법률사례만을 연구한 당대 법학자들과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Laws,* I. 14). 키케로는 자연적 정의에 근거하여 인간의 도덕적 평등(moral equality of man)을 하나의 도덕 원칙으로 확립하는데, 이는 인간의 도덕적 불평등을 근간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정치철학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

23) 루소는 시민종교의 긍정적인 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전능하고, 전지하며, 은혜롭고, 통찰력과 섭리를 지닌 신의 존재, 내세, 정의로운 자들의 행복, 악인의 징벌, 사회계약과 법의 신성성. Jean-Jacques Rousseau(1978, 131) 참조.

플라톤은 "영혼의 삼분설"에 입각하여 인간을 이성의 인간, 기개의 인간, 욕망의 인간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불평등한 도덕적 존재로 분류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은 소규모적이고 신중하게 엄선된 집단으로 제한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키케로는 인간은 신과 함께 이성을 공유하고 있고, 모든 인간은 하나의 법에 지배되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은 도덕적으로 평등한 동료시민임을 주장한다.

> 선견지명과 빠른 이해력을 갖추고, 복합적이고, 예민하고, 기억력을 갖고, 이성과 신중성이 충만한,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동물은 그를 창조한 최고의 신에 의해 어떤 독특한 위상을 부여받아 왔다. 왜냐하면 생물의 수많은 종류와 다양성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이성과 사고능력을 갖고 있고, 다른 생물들은 이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조와 지구 속에서 이성보다 더욱 신성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성이 완전히 성숙하고 완전해졌을 때 지혜라고 정확하게 불린다. 그러므로 이성보다 뛰어난 것이 없고 이성은 인간과 신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신의 첫 번째 공유물은 이성인 것이다. 그러나 이성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들은 올바른 이성 역시 공유한다. 올바른 이성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신과 함께 법도 역시 공유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더욱이 법을 공유하는 존재들은 정의도 역시 공유해야 하며, 법과 정의를 공유하는 존재들은 같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여겨져야 한다. 만약에 이들이 같은 권위와 권력에 복종한다면, 이들은 더욱더 같은 구성원으로 여겨져야 한다. 더욱이 이들은 천체의 질서, 신성한 정신, 전능한 신에 복종해야 하며, 그 결과 이 전체 우주는 신과 인간의 공동 국가로 여겨져야 한다(*Laws*, I. 22-23).

키케로에 따르면 신은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했고, 이 이성은 신성한 것으로 신과 인간만이 공유하며, 신과 공유물로서의 이성은 법의 원천이 되고, 정의의 원천이 된다. 올바른 이성, 법, 정의는 같은 토대를 가지며, 이 토대에 근거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같은 토대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 공동체가 형성되며, 근본적으로 이성을 공유하는 신과 인간 사이에는 우주라는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가 형성된다. 정치적 공동체와 우주라는 전체에 참여하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규정된다.

하지만 키케로에 있어 도덕적 평등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도덕적 요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도덕적 평등을 보편적인 자연법의 수준에서 규정

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보다 하위에 놓여 있는 구체적인 시민법의 수준에서 법적인 평등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는 근대적 평등사상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는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으나,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법적인 평등을 고려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키케로는 도덕적 평등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평등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적으로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우수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키케로는 정의로운 분배의 원칙으로 도덕적 평등의 원칙을 살릴 수 있는 "수적인 평등"(numerical equality)보다는 사회적 불평등에 근거한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을 제시하고 있다. 수적인 평등이 민주정의 정의원칙이라면 비례적 평등은 귀족정의 정의원칙이다. 혼합정체에 있어 귀족적 요소를 중시하는 키케로는 인민의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VI. 결 론

키케로는 조화와 정의가 안정적 정치질서의 원천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음악가들이 화성이라는 부르는 것은 국가로 볼 때 조화(*concordia*)와 일치한다. 조화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항구적 결속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최선의 접착제이다. 이러한 조화는 정의의 도움 없이 결코 생성될 수 없다(*Republic*, II. 69)." 여기서 조화는 왕권적 요소, 귀족적 요소, 인민적 요소의 조화를 의미하는데, 키케로는 정의 없이는 조화도 불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의로운 조화에 근거하여 "신분질서에 입각한 품위 있는 평화"(*cum dignitate otium*)가 생성되는데, 이러한 평화는 "온건하고 균형이 잡힌 혼합정체"(moderate and balanced mixed constitution)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형성한다.

키케로가 이상국가의 모델로 삼고 있는 로마공화국의 혼합정체는 인민의 자유와 사유 재산의 보호를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연법에 근거해서 제2차

적 자연법인 시민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키케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더욱 현실적인 이상국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자유, 사유재산, 법적 정당성의 원천으로서의 자연법 등의 개념을 보다 명백히 하고,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여 국가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자신이 수용했던 그리스 정치철학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후대의 근대정치철학이 발달할 수 있는 근거점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키케로가 그리스 정치철학을 내용적으로 심화시켰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가 "로마인 플라톤"으로서 그리스 정치철학을 로마의 법률과 제도에 적용함으로써 그리스 정치철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이 적용과정에서 근대적 사고의 단초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가 고대정치철학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찾을 수 있다.

키케로가 사랑했던 로마공화국의 혼합정체는 조화와 정의라는 면에서 결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보편적인 자연법적 정의를 국가 구성의 으뜸 원리로 삼았지만 그의 정의관은 로마인의 독특한 편견이라 할 수 있는 "조상들의 전통"(*mos maiorum*)에 대한 과도한 사랑으로 타락되어 있었다. 또한 그가 추구한 조화는 인민적인 요소와 귀족적인 요소 사이에 균형을 취한 것이라기보다는 귀족적인 요소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편파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결점 때문에 키케로의 정치철학은 상당인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공화국의 회복을 지향했던 키케로의 보수적인 정치철학은 당시 로마가 제정으로 변화해가면서 새롭게 발달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으며 그 정치적 호소력을 상실했다. 만약 키케로의 당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조상들의 전통"을 벗어나 좀더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고 또한 인민적 요소를 보다 강조하는 정치철학을 완성했더라면, 키케로의 정치철학은 보다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어, 오늘날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철학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물론 키케로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

조화와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치철학이 산출될 수 있다. 우리는 키케로의 정치철학에서 "조화와 정의"에 대한 키케로 자신의 관점이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키케로의 철학은 조화와 정의를 어떻게 정치에 적용할 수 있는 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범이다. 우리가 이 모범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화와 정의"에 대한 관점에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철학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민. 1995. "플라톤의 정치철학." 김영국 외.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용민. 2000. "정치에 있어서 정의와 우정: 플라톤과 크세노폰." 『한국정치학회보』 34집 3호.

허승일 외. 2006. 『인물로 보는 서양고대사』. 서울: 도서출판 길.

Atkins, E. M. 2000. "Cicero." Christopher Rowe and Malcolm Schofield, eds. *Greek and Roma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iley, D. R. Shackleton. 1971. *Cicero*.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Cicero. 1970. *De Re Publica & De Legibus*. Translated by Clinton W. Key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Everitt, Anthony. 2001. *Cicero: A Turbulent Life*. London: John Murray Publishers(김복미 역. 2003. 『로마의 전설 — 키케로』. 서울: 서해문집).

Holton, James E. 1987. "Marcus Tullius Cicero." Leo Strauss and Joseph Cropsey, eds.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ong, A. A. 1995. "Cicero's Plato and Aristotle." J. G. F. Powell, ed. *Cicero the Philosopher: Twelve Papers*. Oxford: Clarendon Press.

Plato. 1980. *Laws*. Translated by Thomas L. Pangl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owell, J. G. F. Powell ed. 1995. *Cicero the Philosopher: Twelve Papers*. Oxford: Clarendon Press.

Radford, Robert T. 2002. *Cicero: A Study in the Origins of Republican Philosophy*. New York: Rodopi.

Rousseau, Jean-Jacques. 1978. *On the Social Contract with Geneva Manuscript and Political Economy*. Edited by Roger D. Masters. New York: St. Marin's Press.

Sabine, George H., and Thomas L. Thorson 저 · 성유보 · 차남희 역. 2005. 『정치사상사 1』. 파주: 한길사.

Schofield, Malcolm. 1995. "Cicero's Definition of Res Publica." J. G. F. Powell ed., *Cicero the Philosopher: Twelve Papers*. Oxford: Clarendon Press.

Stockton, David. 1971. *Cicero: A Political Bi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tauss, Leo. 1975. *The Argument and the Action of Plato's Law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edemann, Thomas. 1994. *Cicero and the End of the Roman Republic*. London: Bristol Classical Press.

Williams, Rose. 2004. *Cicero the Patriot*. Wauconda, Illinoise: Bolchazy-Carducci Publishers.

Wood, Neal. 1988. *Cicero's Social & Political Though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

Cicero's Political Philosophy: With Focus on his *Republic* and *Laws*

Yong Min Kim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ith Socrates, Plato, Xenophon, and Aristotle, Cicer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s of the ancient political philosophy. His contribution, however, did not receive full attention from the scholars. His originality was disregarded due to the fact that he wrote his own dialogues, *Republic* and *Laws*, in imitation of Plato. But we must pay attention to his contribution to ancient political philosophy that he expanded the horizon of ancient political philosophy by providing a new interpretation to such essential concepts as property, liberty, mixed constitution, natural law and justice from a perspective of a Roman Plato, and to his originality that some of his newly interpreted concepts formed the basis for modern political philosophy. Cicero's political philosophy which is grounded on concord and justice reflects well his perspective on these ideas. By understanding Cicero's ideas of concord and justice, we can build a new political philosophy which would correspond to our own idea of concord and justice.

Keywords: property, liberty, mixed constitution, natural law, civil law, justice, concord, ideal state, Roman Republic